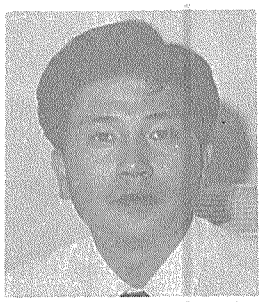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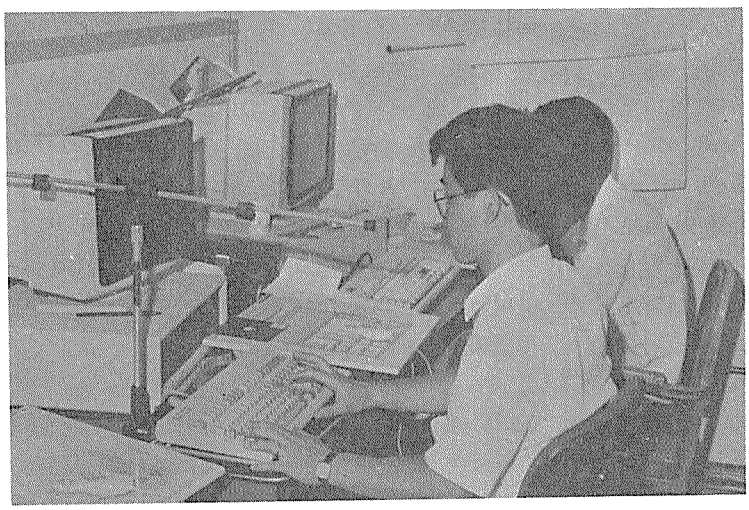
연구소소개

제일정밀공업(주) 부설연구소

최첨단 제품개발을 목표로……



沈 載 琇
연구소 담당이사



〈연 혁〉

- '87 2 연구소 설립
- '87. 9 JP-3400(24 Wire Dot PRT) 생산
- '88. 3 JP-3400/4500 & JP-5600 PRT출시
- '89. 3 통장인쇄기, 통장자동정리기 개발
- '90. 10 금융단말기 개발
- '90. 12 정보검색단말기 개발 및 품질인증 획득(한국통신)
- '91. 4 행정망 품질인증 획득(LBP) : DACOM

연구소 설립 배경은?

근래들어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고, 신기술 개발에 대한 욕구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기관의 필요성과 소수 정예로서의 기술집단화, 인력전력화를 통한 한국적 제품 실현이라는 의지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저희 제일정밀공업(주) 부설연구소는 2곳이 있는데 제1연구소는 본사가 자리하고 있는 창원시에 있고, 제2연구소 즉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분야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요. 현재 연구인원(제2연구소)은 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글쎄요, 좁게는 기업적 차원에서의 문제고 넓게는 사회적, 국가적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인력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엔지니어와 처음 입사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술축적을 시켜 상품을 개발해 내는 능력을 늘려 나아가느냐가 관건이지요. 이것이 바로 노하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테크니칼 노트라고 하는 저희 연구소만의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세미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팀별로 1주일에 2번 이상 분임조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현재까지는 효과가 대단히 높지요. 또한 선배연구원과 후배연구원과의 연구토의를 통하여 흔히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기술축적이란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축적에 대한 시간의 단축과 정확성을 기르는 데는 더할나

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연구소 조직은?

저희 연구소는 5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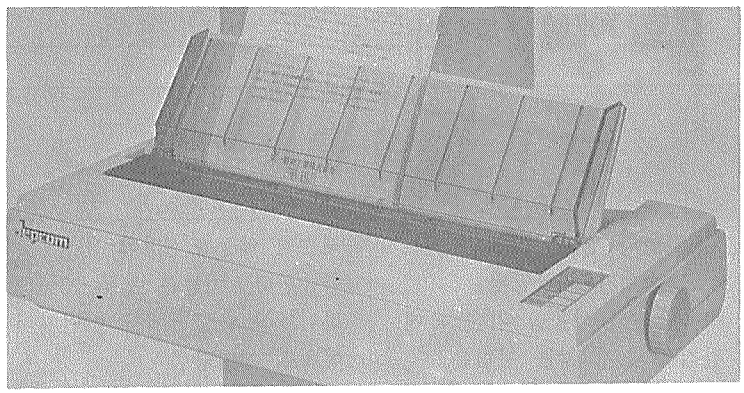
제1실은 기존의 Dot Matrix Printer에서 한차원 높은 다시 말해 새로운 차원의 Printer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금융시장쪽의 제2실, 정보통신 연구쪽의 제3실, 제품의 신뢰성과 기구설계 및 Power Suppy를 담당하고 있는 제4실과 마지막으로 기술관리쪽을 담당하고 있는 제5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로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한마디로 소수정예라고 할까요.

연구원 시절 어려웠던 점은?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워낙 바쁘고 하는 일이 즐거웠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지요.

한마디로 연구원은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찾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그 사람의 성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80년도에 한국전자점람회 신제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당시 연구소에서 반년 동안을 살다시피한 기억이 있죠. 그리고 동료와 여러 가닥의 선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교신상태를 실험할 때, 반응이 없어 가보면 그사이 잠이 들어 있기도 했죠. 이러한 지나온 일들을 생각할 때 연구원은 천직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향후 연구소 운영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지능화 쪽으로 중점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집에서의 Multi Media체제를 대비한 제품의 개발이 목적입니다. 현대는 최첨단인 인공지능화가 아니면 유저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가령 잠을 자는데 어머니 팔베게를 하고 잠을 자는 것이 가장 편안하지요. 어떠한 것도 팔베게 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제품은 이러한 편안함이 있는 인공쪽으로의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영역의 제품들을 Function은 물론이고 기술 집약형 Look & Feel의 감각적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사용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최고의 품질에 우선할 생각입니다. 또한 응용기술 제품개발 뿐만 아니라 요소기술 축적 및 확보에 주력하여 다가올 첨단산업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소 활성화 방안은?

지금은 각기업마다 연구소가 전부 설립되었다고 봅니다. 연구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첫째는 기술의 방향과 Timing을 놓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안정된 연구활동을 위한 자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Project의 특성에 맞는 Project 관리제도의 도입이라든지 기업특성에 맞는 연구원 제도 및 Incentive제도의 정착 등이 있겠지요. 결국은 연구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둘째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목적과 특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기술과 시장감각이 미래 지향적이고 기업의 발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원들 또한 기술력에 너무 집착하여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반쪽 연구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책담당자나 업계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도적인 후원도 좋지만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전자산업을 지켜봐 주었으면 합니다. 최근들어 국가적인 기술개발 정책지원을 표방하고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된 점들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 업계, 학계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봅니다